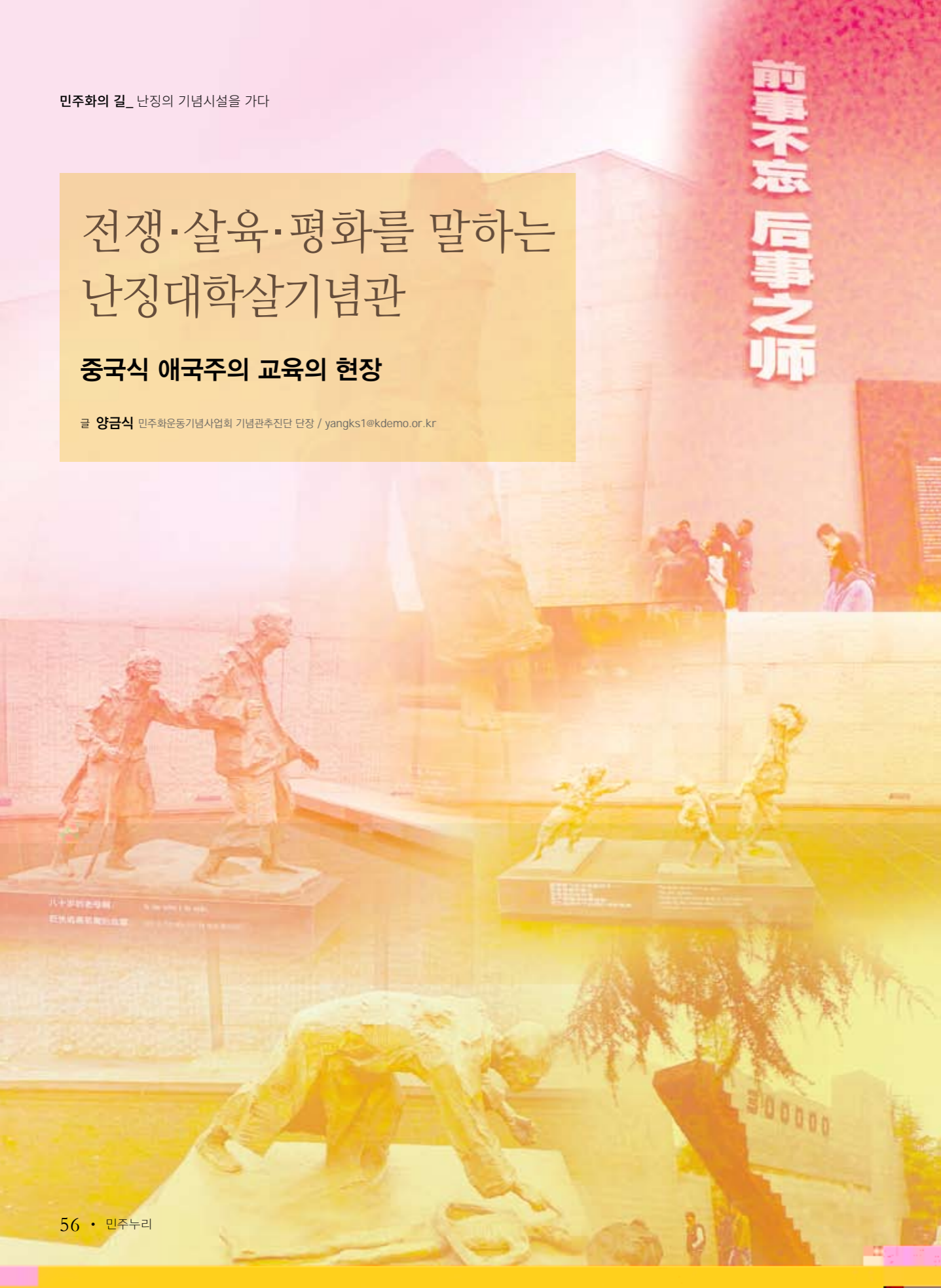


# 전쟁·살육·평화를 말하는 난징대학살기념관

## 중국식 애국주의 교육의 현장

글 양금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단 단장 / yangks1@kdemo.or.kr



### 난징대학살 기억 복원 위한 기념관의 노력



####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다짐한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근현대사의 여러 전쟁들이 남긴 상처들은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일본에서도 기억과 기념, 또는 왜곡과 망각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난징(南京)에서 일어났던 비극 역시 기억투쟁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10월 9일, 일본군이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초까지 중국에서 저지른 '난징학살' 관련 사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해 중국이 난징학살과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자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중국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일본은 중국이 제시한 난징학살 사료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항의했다. 또 난징학살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30만 명이라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의 공식 명칭은 '침화일군남경대

도살우난동포기념관(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으로 강동문(江東門) 집단학살 및 '만인갱' 유적지 위에 세워졌다. 1985년 8월 개관 후 두 차례의 확장공사를 거쳐 부지 7만 4천 평방미터에 2만 5천 평방미터의 건축면적과 9,800 평방미터의 전시면적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기념관은 2007년 12월 13일 남경대학살 70주년에 맞추어 조성되었고, 전시구역, 추모지역, 평화공원과 수장교류 지역을 가진 기념·유적형 역사박물관이자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안내 자료는 밝히고 있다.

관람객은 최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평화의 배'를 상징하는 전시관의 측면을 따라 입구를 향하게 된다. 전시관의 외형은 뱃머리가 하늘로 솟은 조형물인데 옆에서 보면 끊어진 군도(軍刀), 위에서 보면 검과 쟁기의 입체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가는 도중에 '가파인망(家破人亡)'이라는 10여 미터 높이의 조각상과 수면 위에 설치된 '시민피난'이라는 조각상들을 만나게 된다. 비극의 역사를 마주하러 가는 길에 방문객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의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을 통과하면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대학살의 참상은 관람자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를 새기면서 눈물이 어리게 만든다.

\*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자신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중국 학생들.

추모집회광장 정면에는 검은 화장암에 ‘참사자 300,000’이라고 12개 국어로 새긴 ‘재난의 벽’, ‘1937.12.13-1938.1’라고 쓰인 십자가 형태의 ‘표지비석’과 일본 거주 화교들의 기부로 제작된 ‘평화의 종’이 있다. 이 광장에서는 각종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들이 열린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전통신발을 광장 가득 줄지어 놓아두거나 촛불을 밝히는 행사들이 있었음을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현장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역사자료전시관은 지하와 1층에 ‘인류의 재난 - 남경대학살역사 실증전시관’을, 2층에 ‘승리 1945’를 배치하였다. 실증전시관은 각종 자료와 실물 사료를 배치하여 인간이 저지른 처참한 학살의 모습을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다. 전시실 중간에는 ‘강동문 유적 참사자 유해’ 공간이 있는데 2007년 기념관 확장 당시 새롭게 발굴된 유해를 원래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일본의 역사를 막기 위해 유해를 보존처리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들은 역사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죽어서도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이어서 가슴이 아파진다.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난징학살 당시의 의로운 사

\* 요지광장의 ‘어머니의 외침’(왼쪽)과 난징의 비극을 상징하는 ‘고성의 재난’.

람들에 대한 전시가 있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에 유대인을 도운 의인들의 기념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흔들러 리스트를 생각해 하는 온 라베를 비롯하여 미니 보트린, 존 마기 등 당시 국제안전지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난징 시민을 구했던 국제위원회 멤버들의 사진과 활동상이 소개되고 있다. 온 라베와 안전지대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영화로 제작되어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12초’. 난징대학살 당시 12초에 한 명의 목숨이 희생당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의 이름이다. 시계 소리와 함께 12초에 한 번씩 물방울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양쪽 벽의 희생자 사진을 밝히는 불이 명멸한다. 6주 동안 살해된 30여만 명의 생명이 이렇게 사라져 갔음을 소리와 빛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실을 벗어나면 대형 서고를 만나게 된다. 난징대학살 희생자들의 조사카드를 모아 놓은 문서벽이다. 1만 2천여 개의 자료함이 벽을 이루고 있는데 검은색은 희생자, 파란색은 생존자, 회색은 해외 증인들의 문서 자료라고 한다. 건너편 10여 미터의 벽에 새겨진 ‘前事不忘 后事之師(과거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의 교훈이 된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때에 주은래 전 총리가 제시한 것인데 역사는 하나의 거울이므로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관을 벗어나 유적지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고성의 재난’이란 이름을 가진 조형물은 훼손된 성벽과 파손된 군도, 희생자의 머리와 팔, 희생자를 상징하는 자갈 등을 통해 대학살을 기억하게 한다. 구 전시관 앞 광장에는 국제군사법정에 참여한 222명의 발자국을 동판에 새겨 바닥에 깐 ‘역사 증인의 발자취’와 두 사람의 생존자의 조각, 그리고 난징대학살을 국제적으로 알린 아이리스 장의 동상을 배치하였다.

### 연 500만 명 방문하는 역사교육 현장

옛 기념관을 타고 넘으면 나타나는 ‘묘지광장’은 흰색 자갈을 깔아 풀이 자라지 않게 했다. 백골과 죽음을 의미하는 이곳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마음속 분노가 전해진다. 재난을 표현한 묘지광장 주변의 부조들을 거쳐 희생자 명단이 새겨진 ‘통곡의 벽’을 지나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한 ‘만인갱 유적지’가 나타난다.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에 있는 유골들의 발굴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다. 만인갱을 나와 추모제단과 명상공간을 거쳐 현실세계로 돌아오면 평화공원으로 이어지고, 승리의 벽과 평화의 여신상, 난징평화선언 표지판을 끝으로 기념관의 관람은 마무리된다.

확장된 규모 때문인지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동선을 제한하는 방식도 도입되어 있다.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문단이 난징을 찾았던 2015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가을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기념관에는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군인과 일반 성인까지 관람객의 구성은 다양했다. 중학생 단체방문객이 구 기념관 앞에서 참배와 함께 다짐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대학생 단체는 ‘역사를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자’고 쓰인 완장을 팔에 두르고 있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은 2007년 확장 이후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방문자 수만 보더라도 역사를 기념하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기념관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기지’라는 이름을 붙여 이뤄지고 있는 역사교육들이 개인의 삶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과 마찬가지로 난징대학살기념관 역시 자국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잘못된 역사 해석은 현실에서의 잘못된 상황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누리**

\* 난징대학살 기념관 관람안내도.